

11월 수산물 해외시장동향 및 전망 [러시아]

□ 농림수산물 수입동향

(단위: US백만달러, %)

구분	2012년 1-9월 누계			2012년 9월 당월		2011년 1-9월 누계	
	금액	전년동기 대비(%)	비중(%)	금액	동년전월 대비(%)	전년동기 대비(%)	비중(%)
수입 전체	225,810	102.0%	100%	24,892	89.8%	140.0%	100%
식품 및 농업원료	28,315	90.7%	12.5%	3,188	106.1%	124.6%	14.1%

자료: 연방통계청

□ 주요품목 수입동향

(단위: 천톤, %)

품목	2012년 1-9월 누계		2012년 9월 당월			참조	
	물량	전년동기 대비(%)	물량	전년동월 대비(%)	동년전월 대비(%)	'11.1-9/ 10.1-9	'11.9/ 10.9
신선·냉동어류	524	106.2	68.2	97.5	117.8	85.6	109.7

자료: 연방통계청(벨라루시와 카자흐스탄공화국과의 무역지수 합산)

○ 신선 혹은 냉장어류 수입

- 2012년 1-9월간 신선 혹은 냉장어류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58.7%(45.4천 톤) 증가한 122.7천 기록. 수입증가원인은 냉장 대서양연어와 무지개송어 수입증가에 연유함(60.4% 증가한 112.1천 톤 기록, 주로 노르웨이산). 수입품목구조에서 비중이 높은 것은 대서양연어(점유율 52.6%, 899천 톤), 무지개송어(18.1%, 22.2천 톤), 열빙어(4.3%, 5.3천 톤), 농어(시바스), 유럽농어(라브락), 아우라타, 도미류, 터보트(3.1%, 3.8천 톤), 철갑상어(0.5%, 0.6천 톤)
- 1-9월간 주요 어종 모두에서 수입은 성장함. 특히, 냉장 대서양연어의 성장률은 52.6%, 무지개송어 85%, 열빙어 6.6배, 철갑상어 2배를 보임
- 신선 혹은 냉장어류 주요수출국들은 대러 어류 공급을 증가시킴. 즉, 노르웨이(전체규모에서 비중 90.8%)는 대러 어류수출을 60.1% 증가시켜 11.4천 톤 집계(대서양연어, 무지개송어, 열빙어, 해덕), 터키(점유율 2.3%)는 3% 증가한 3.7천 톤(아우라타, 도미류), 페로제도(점유율 2%)는 5.3배 증가한 2.4천 톤(대서양연어), 덴마크(1.6%)는 72.7% 증가한 1.9천 톤(대서양연어, 무지개송어), 그리스(1.3%)는 14.2% 증가한 1.6천 톤(시바스, 라브락, 아우라타)
- 총체적으로 약 80%의 신선 혹은 냉장어류가 러시아중앙지역(모스크바지역, 상트페테르부르크, 무르만스크)으로 유입됨
- 냉장대서양연어 대외무역가격 인하가 수입성장을 촉진함. 이 기간동안 냉장대서양연어 대외무역평균가격은 23.3% 감소하여 6.37달러/kg에서 4.89달러/kg까지 인하했고, 냉장무지개송어의 경우 24.5% 감소하여 6.96달러/kg에서 5.25달러/kg까지 인하함
- 어류 수요와 소비의 절정기(4분기)인 가운데, 올해 11-12월에는 신선 혹은 냉장어류 수입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. 시장전문가의 전망에 따르면, 2012년에 신선 혹은 냉장어류 수입이 200천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(2011년에는 약 125천 톤 수입됨)

○ 냉동어류 수입

- 2012년 1-9월간 냉동어류(HS코드 0303) 수입에 따르면, 수입 증가 품목은 블루화이팅(17배 증가, 20.6천 톤 집계), 열빙어(51.1% 증가, 41.7천 톤), 냉동 대서양연어(36.1% 증가, 14.7천 톤), 킨카와 스프렛(24.5% 증가, 37.6천 톤), 넙치(14.3% 증가, 0.8천 톤), 청어(7.9% 증가, 65.7천 톤)임

- 그 외 다른 품목의 수입은 모두 감소함. 특히 수입 감소율이 높은 품목은 정어리와 사르디넬라(71.3% 감소, 7.3천 톤), 대서양붉은볼락(64.4% 감소, 1.6천 톤), 고등어(18.8% 감소, 64천 톤), 무지개송어(9.3% 감소, 10.7천 톤), 민대구(9.3% 감소, 10.7천 톤)임
- 연방관세청의 잠정치에 따르면, 냉동어류 수입은 2.2% 감소한 303.5천 톤으로 집계됨
- 대러 주요수출국들의 어류 수출은 증가함. 특히, 노르웨이는 6.1% 증가한 94천 톤(청어, 열빙어, 고등어, 대서양연어, 블루하이팅), 아이슬란드는 22.4% 증가한 66천 톤(고등어, 열빙어, 청어), 에스토니아는 9.9% 증가한 26.6천 톤(킬카)을 기록함. 이와 동시에, 칠레의 냉동 대서양연어와 무지개송어 수출은 19.8% 감소하여 10.1천 톤 기록

○ 피레트 수입

- 2010년 1-9월간 피레트(HS코드 0304) 생산이 성장하는 가운데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5%(13.5천 톤) 감소한 76천 톤으로 집계됨. 어류 피레트 주요 어종 모두 수입이 감소함. 주로 동남아국가들에 서부터 어류피레트 수입 감소가 지속되고 전세계 대서양청어 어획감소로 인해 초래된 대서양청어피레트 수입 감소 때문임
- 가장 수입이 감소한 품목은 민대구피레트로 전년동기대비 66.7%(2.2천 톤) 감소한 1.1천 톤 기록(주로 중국산), 틸라피아와 팡가시우스피레트 25.9%(7천 톤) 감소한 20.2천 톤(중국과 베트남), 청어피레트 25.6%(8.6천 톤) 감소한 25천 톤(노르웨이), 수리미(연육) 23.8%(2.9천 톤) 감소한 9.3천 톤(인도), 명태피레트 20.2% 감소한 7.5천 톤(중국), 참치피레트 12.5% 감소한 0.7천 톤(인도네시아, 스페인) 기록함. 또한, 넙치, 기름치, 호키 등의 피레트 수입도 28.9%(1.1천 톤) 감소한 2.7천 톤 기록
- 주요 피레트 수출국들은 대러 공급이 감소함. 즉, 노르웨이(총 규모에서 비중 30%)의 대러 피레트 수출은 6.2% 감소한 22.7천 톤 기록(청어, 대서양연어, 무지개송어 피레트), 중국(비중 26%)은 22% 감소한 19.9천 톤(틸라피아, 명태, 민대구, 연육, 기름치, 대서양붉은볼락 피레트), 베트남(비중 17%)은 26% 감소한 13.2천 톤(팡가시우스피레트, 연육)
- 수입구조에서 상당부분은 노르웨이산과 아이슬란드산 청어피레트(비중 33%)가 차지하며, 중국산 틸라피아피레트와 베트남산 팡가시우스피레트(26.5%), 연육(12%), 주로 중국에서 생산된 러시아산 명태피레트(10%) 순을 보임
- 러시아시장으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얼음막 함유율이 10-20%를 보이는 동남아 국가산 피레트가 들어오고 있음. 2011년 상반기에는 조사된 어류제품 총규모에서 품질 낮은 수입산 어류제품이 18%가 적발되었다면, 2012년 상반기에는 31%가 적발됨
- 총체적으로, 1-9월간에는 전년동기대비 피레트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 국내 어류피레트 생산 1.3% 증가함

○ 갑각류 수입

- 2012년 1-9월간 갑각류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1.3%(4.4천 톤) 감소한 34.4천 톤 기록. 수입감소 원인은 주로 새우 수입규모 감소로 인해서임. 새우 수입은 12.6%(4.8천 톤) 감소한 33.3천 톤 기록
- 그중 *pandalus* 속의 바다새우 수입은 15.4% 감소한 21.4천 톤 기록. 이 종류 새우의 주요 대러 수출국은 캐나다(점유율 70%), 덴마크(22%)임. 이 기간 동안 대외무역평균가격은 7.2% 인상된 3.5 달러/kg로 거래됨
- *vannamei* 속의 새우의 경우 10.1% 감소한 10.7천 톤 기록. 주요 대러 수출국은 중국(점유율 65%), 페루(8%), 방글라데쉬(7%)임. 이 기간 동안 대외무역평균가격은 4.6% 인하된 6.2달러/kg로 거래됨
- 2009년부터 해산물 수입의 안정적인 감소 과정이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음. 즉, 2009년에 해산물 수입은 전년대비 가격기준 29.8% 감소, 물량기준 31%(27천 톤) 감소한 62천 톤 까지 기록. 주요 수입 감소 품목은 새우임. 2011-2012년간에도 해산물 수입감소 과정은 계속됨
- 주로 이러한 수입감소 과정은 경제위기와 구매능력감소가 시작된 점과 연관되어 있고, 또한 2010년 10월 1일부터 도입된 새로운 위생규정, 즉, 새우의 얼음막 함량을 6%, 수생생물자원제품 얼음막

함량을 8%로 규정지은 것과 연관됨. 경제위기시기에 구매능력수요 하락과 해산물 품질요건 강화, 해산물 가격인상으로 인해 해산물 수입은 현저히 줄어듦

- 새우 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, 올해 1-9월간 러시아 새우어획량은 0.2% 증가한 7.2천 톤을 기록하였고 수출은 1.5% 감소한 6.4천 톤을 기록함. 이와 동시에 냉동갑각류제품의 국내생산 총규모는 14.8% 증가함

○ 연체동물 수입

- 2012년 1-9월간 연체동물 및 기타수생생물자원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1.9%(2.9천 톤) 감소한 6.2천 톤으로 집계됨
- 수입감소원인은 주로 일본(전체규모에서 비중 75%)과 한국(25%)에서부터 연체동물 수입규모가 줄고(2.5배 감소, 3천 톤 기록), 네덜란드에서 굴 수입도 축소됐기 때문임(73% 감소, 20톤 기록)
- 이와 동시에 한국(비중 91%)에서부터 고동과 오징어제품수입이 증가했고(41% 증가, 1.16천 톤 기록), 또한 건염오징어 수입도 3.8배 증가함(2천 톤 기록)
- 어획량이 성장하는 가운데, 연체동물 수입이 줄어듦. 즉, 1-9월간 고동 어획량은 전년동기대비 2.9% 증가한 3.7천 톤 기록, 오징어 어획량은 0.9% 증가한 54.2천 톤 기록

○ 어류조제품 수입

- 2012년 1-9월간 염건조 및 훈제 어류제품(HS코드 0305)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4.6% 증가한 9.1천 톤 기록함. 수입 증가 원인은 중국산(비중 54%)과 베트남산(비중 27%) 염건조어류제품(명태, 아틀란틱호스마르셀, 참치, 붕어, 블루화이팅) 수입(35% 증가한 2.5천 톤 기록)과 페루산(비중 72%) 염장캐비아(날치, 청어) 수입(5.3배 증가한 185톤), 중국산 염건조대구어류제품 수입(10배 증가한 211톤) 때문임
- 이와 동시에 수입 감소도 발생함. 태국산(비중 60%)과 베트남산(비중 30%) 염건조안초비 16.3% 감소한 770톤, 또한 가자미, 명태, 참태, 대서양붉은볼락, 슈카, 대서양연어, 청어로 만든 염건조 피레트 43% 감소한 1.2천 톤 기록함
- 염건조 및 훈제 어류제품 대러 주요 수출국은 동남아국가들이며 그 중에는 중국(비중 58%), 베트남(22%), 태국(18%)이 있음
- 염건조 및 훈제 어류제품 수입이 성장하는 가운데, 국내생산도 증가했음. 1-9월간에는 전년동기대비 약하게 염장한 어류(청어 제외) 생산 26.6% 증가, 염수장 및 마리네이드 어류 생산 21% 증가, 냉훈어류 1.4% 증가함. 이와 동시에 말린 냉훈제품 3% 감소, 말린 어류 5.4% 감소, 어류조제품 4.1% 감소, 연어캐비아 13.1% 감소함
- 대서양청어 어획의 급감에도 불구하고, 약하게 염장한 청어 생산은 소폭 감소함(1.1%). 태평양청어 어획 성장으로 인해 대부분 수입산 대서양청어 대신에 태평양청어로 대체함

□ 향후 시장 전망

○ 이슈 현안

○ 올해 청어와 고등어 소비 감소

- 러시아인들에게 인기 높은 어종인 청어와 고등어 소비가 올해 감소하고 있다고 러시아수산청이 밝힘. 올해 초부터 러시아 어부들은 청어 303.1천 톤을 어획했고 이는 전년동기대비 1.1%(3.4천 톤) 감소한 것임. 약하게 염장한 청어 생산은 이 기간 동안 1.1% 감소함
- 냉동청어(주로 태평양청어) 수출은 2012년 1-9월간 2.8% 감소한 117천 톤으로 집계됨. 냉동청어는 주로 동남아국가들로 공급됨. 이 기간 동안 대서양청어 수입은 8% 증가한 66천 톤으로 집계됨(주로 노르웨이산)
- 하지만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올해 청어시장 축소는 피할 수 없었고(규모 430천 톤) 이는 연

평균 지표보다 22% 적은 것임. 그 결과 청어 소비는 연간 일인당 지난 5년간 4.1kg인데 비해 3.1kg까지 감소될 수 있음

- 올해 9개월간 수입산 청어가 가격은 68.8% 인상되어 1kg당 0.74\$로 거래됨. 러시아시장에서는 수입산 청어 대신에 가격이 더 저렴한 자국산 태평양청어로 대체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음. 2009년-2011년간 수입산 청어 비중은 48.1%에서부터 44.9%까지 감소했음
- 청어는 러시아에서 어종 및 어류제품 중에서 소비규모 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음. 4위는 고등어가 차지하고 있는데, 최근 5년간 평균 일인당 고등어 소비는 연간 약 1.7kg으로 집계됨. 하지만 올해에는 1.5kg까지 감소될 수 있음
- 올해 초부터 러시아 어민들은 고등어 92천 톤을 어획했고 이는 전년동기대비 19% 감소한 것임. 이 기간 동안 고등어 수입은 19.4% 감소한 64천 톤을 기록함. 고등어 주요 공급국은 노르웨이임. 수입산 고등어 가격은 11% 인하된 kg당 2.02\$로 거래됨. 러시아수산청의 전망에 따르면, 올해 고등어 시장은 전년대비 20-25% 축소되어 180-200천 톤으로 집계될 것으로 전망됨

(자료: 인테르팍스)

○ 수입업자들 수 감소되고 있어..

- 올해 1-9월간 어류 및 해산물(HS코드 03류) 주요 수입업자 Top10은 수입 총 규모에서 그 비중을 전년동기대비 43%(234천 톤)에서부터 47.4%(267천 톤)까지 증가하였음. 주요 수입업자들의 수입 성장은 주로 노르웨이산 냉장 대서양연어와 무지개송어 수입 증가로 인해 발생되었음
- 어류 및 해산물 주요 수입업자 Top10의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, 수입업자들 총 수는 26% 감소하였고(대외무역활동참가자들 620명에서부터 458명으로 감소), 수입 총규모는 3.7% 증가한 565천 톤을 기록함
- 2007년부터 시작하여 어류 및 해산물 수입에서 해마다 수입업자들의 수는 감소하고 있고 주요 수입업자 Top10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. 특히 올해 1-9월간 러시아 수입에서 냉장 대서양연어의 경우 Top10의 비중은 물량기준 87%를 차지했고, 냉장 무지개송어의 경우 97%, 냉동 대서양연어의 경우 74%, 냉동 무지개송어의 경우 61%, 냉동 청어의 경우 76%, 냉동 고등어의 경우 82%, 냉동 열빙어의 경우 81%, 냉동 킬카의 경우 91%, 냉동 블루화이팅의 경우 93%, 어류피레트의 경우 62%, 갑각류의 경우 77%, 연체동물의 경우 44%를 차지함

(자료: 연방수산청)

○ 2012년 어류 및 해산물 반가공품 생산 1.9% 성장할 수도

- 자국산 어류 및 해산물 반가공품 생산이 2009년부터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. 2012년에 러시아업체들이 전년대비 7.6% 증가해서 제품을 생산했다면, 2011년에는 생산규모가 20.4% 증가했고, 올해 결산시 어류 및 해산물 반가공품 생산은 1.9%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- 2011년 자국산 어류 및 해산물 반가공품 생산의 절반 이상은 북서연방관구 생산자들이 차지함. 극동연방관구 생산자들은 시장에서 제품공급보다 19.9% 적게 공급함. 남부 및 중앙연방관구 비중은 7.8%로 집계됨
- 러시아산 어류 및 해산물 반가공품 생산 지역구조에서 규모가 큰 8개 지역들(해당 제품 생산자들이)이 2011년에 80% 이상을 차지함. 러시아산 어류 및 해산물 냉동반가공품의 3분의 1은 무르만스크 주 생산자들이 차지함. 연해주의 비중은 14.7%이며, 캄차트카 크라이의 비중은 10.5%임

(자료: 인테스코 리서치 그룹)